

태국 '아유타야'와 '치앙마이'

글·사진 허용선(여행 칼럼니스트)



▲ 아유타야에는 많은 문화유적이 남아 있다.

방콕에서 북쪽으로 76km 떨어진 아유타야는 1350년부터 1767년까지 아유타야 왕조의 수도로 번영을 누렸던 곳이다. 태국 최초로 통일국가를 이룬 아유타야 왕조는 무역국으로 발전했으나 미얀마의 침입으로 417년 동안 이어온 왕조는 끝내 멸망했다.

아유타야 시대 왕족 전용 불교 사원이었던 왓 프라시산펫에 가보면 과거 찬란했던 문화가 솔솔 다가온다. 유네스코에서는 아유타야의 귀중한 문화 유적지를 1991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치앙마이는 700년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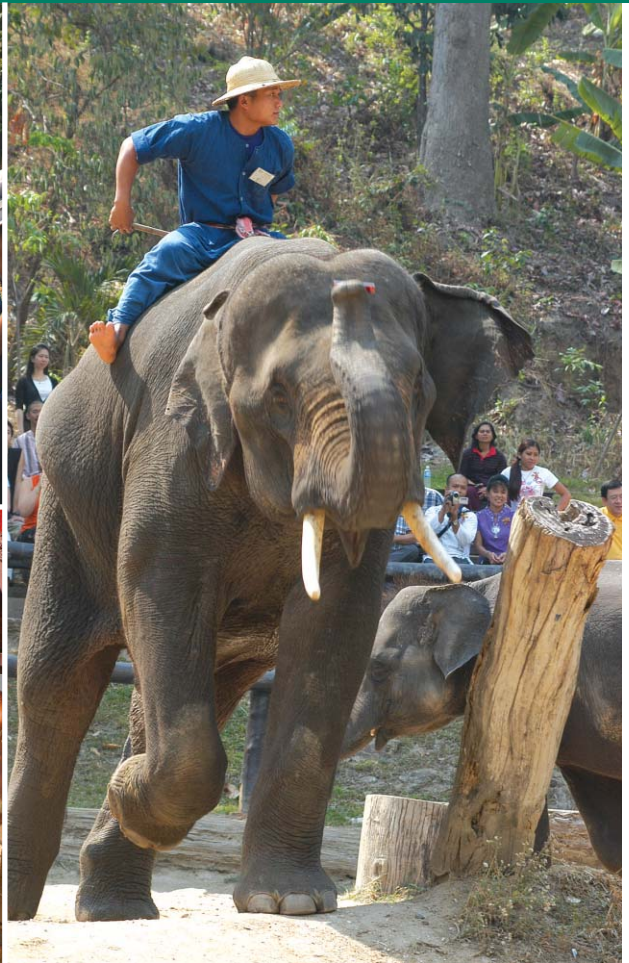
된 오랜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유네스코에서는 치앙마이를 '세계 10대 관광지'로 선정한 적이 있다. 북방의 장미라는 별칭을 가진 치앙마이는 해마다 세계 각국에서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이름난 휴양지다.

얼마 전 세계문화유산을 취재하려고 방문한 아유타야는 마치 한국의 경주가 연상되는 고도(古都)였다. 3기의 흰 탑이 높이 솟아 있는 왓 프라시산펫(Wat Phra Si Sanphet)은 규모가 큰 불교 유적지인 아유타야의 상징이다. 방콕의 왓 프라게오에 비견되는 중요한 왕궁 사원으로 과

▼ 송크란 축제 때 지나는 사람에게 물 뿌리는 모습



▼ 코끼리는 태국에서 사람을 위해 여러 일을 한다.



▶ 가족과 함께 소원을 비는 모습

거에는 왕족만이 사용하던 사원이었다.

우뚝 솟은 3기의 탑은 실론(스리랑카) 양식의 체디로, 프라이룩까낫 왕과 그의 아들이자 왕이었던 두 명의 유골이 탑 밑에 있다. 1500년 라마티보디 2세는 이곳에 170kg의 금을 입힌 16m 높이의 불상을 세웠으나 1767년 미얀마 군대가 들어와 금을 녹여내려고 사원에다 불을 질러 불상과 사원은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현재의 3기의 체디는 방콕 왕조 초기에 모습으로 재건된 것이다. 부근에 있는 위한 프라몽 콘 보핏 사원 내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약 12.5m)는 16세기의 청동 불상

하나가 있다.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효험이 있다고 하여 태국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आयुताया에서는 코끼리를 타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2백 바트(약 5천원)만 내면 출렁거리는 코끼리 등 위에서 한동안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라이 크라통 축제는 태국력 12월 보름에 '크라통'(Krathong)이라고 하는 바나나 잎으로 만든 연꽃 모양의 배 위에 초를 밝혀 강물에 띄워 보내며 소원을 비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행사다. 태국 사람들은 촛불이 꺼지지 않고 멀리 떠내려가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믿는다. 수백, 수천 개의 크라통이 감감한 어둠을 밝

■ 세계문화탐방...태국 '아유타야' 와 '치앙마이'

히며 강물 위로 떠가는 모습이 장관이다.

밝은 보름달 아래 고요하고 잔잔하게 흐르는 물을 따라 촛불을 깜빡이며 부드럽게 흔들거리며 떠내려가는 많은 '끄라통'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저녁에는 각 가정이나 상점마다 아름답게 장식한 제등을 달고 축하한다.

방콕 동쪽에 있는 차청싸오는 '레이 끄라통 축제'가 큰 규모로 열리는 도시이다. 차청싸오의 방빠쿱 강변 행사장을 가보니 그야말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강변에선 가족이나 연인끼리 끄라통을 띄우고 또 다른 한쪽의 무대에서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다. 또한 광장에는 수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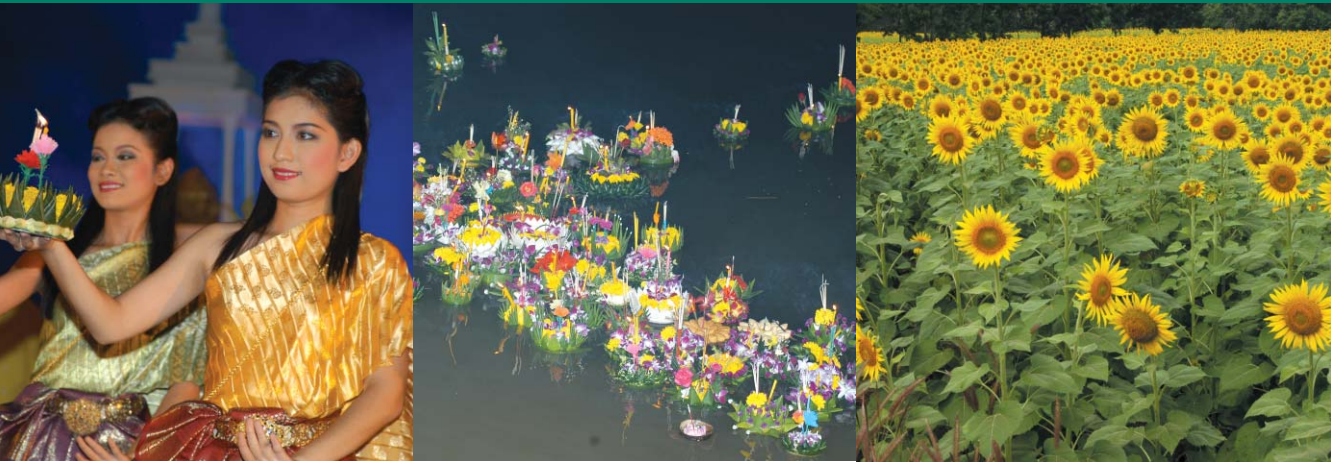
어는 산스크리트어로 새해 첫날을 의미하며, 이 축제 기간에는 독특한 풍습인 물 뿌리기, 방생, 미인선발대회, 폭죽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태국에서 송크란 축제가 가장 신명나게 벌어지는 곳은 북부의 치앙마이이다. 송크란 축제 기간에 치앙마이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인기가 높은 것은 미인선발대회다. 예부터 치앙마이는 미인의 고장이라 알려졌으며, 실제로 미스 태국의 75% 이상이 이곳 출신이라고 한다. 흰 피부에 콧날이 높게 솟은 얼굴, 날씬하고 탄력 있는 몸매, 흰 블라우스에 짧은 치마를 입은 치앙마이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

▼ 정성드려 만든 꽃을 강물로 나르는 모습

▼ 레이끄러통 축제 때 강물위로 떠가는 끄러통

▼ 지평선 너머 자라고 있는 해바라기밭



곳의 음식 노점상이 손님들 부르고 있었다. 차청싸오에는 왓 소턴이라는 이름의 사원이 있다. 강가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이 사원은 영험하기로 소문나 있어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치앙마이는 태국 제2의 도시로 독특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방콕에서 약 70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비행기로는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방콕은 불과 200년의 짧은 역사를 지닌 도시이지만 치앙마이는 13세기 독립왕국이던 란나 왕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도시 곳곳에서 고대 사원과 유적들을 볼 수 있다.

태국력으로 새해 첫날인 4월 13일부터 3일간 전국적으로 '송크란 축제'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송크란'이란 단

고 가는 모습은 가히 매력적이며,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서 느껴지는 건강한 자연미 역시 매우 인상적이다.

송크란 축제 때 거리를 걷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뿌려대는 물세례를 받기 십상이다. 축복의 의미로 물을 뿌리는 것인 만큼 상대방에게 화를 낼 수도 없는 처지여서, 그저 웃으며 지나가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끼리 모여 다정하게 서로 물을 뿌려주기도 하고, 물통이나 바가지를 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뿌리기도 한다. 그러다가 자신도 어디선가 날아오는 물세례를 받아 놀라는 일도 더러 있다. 송크란 축제 때는 태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도 함께 어울려 물세례를 주고받는다. 🇹🇼